

2021 문화계 결산 <2> 문학·문화재

‘광주문학’ 35년만에 100호 발행 화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시인 주축 서울서 시 전문지 ‘상상인’ 창간 동주문학상 강재남 시인 수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계 전반이 위축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작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문학계는 창간 35년만에 ‘광주문학’이 100호 발간을 맞았으며 광주일보신춘문에 출신 시인들이 시 전문지를 창간하는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 밖에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동주문학상 공모전은 전국에 걸친 시인들이 참여해 운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광주 지역문단의 ‘저수지’ 역할을 담당해왔던 ‘광주문학’은 올해 100호를 발간해 화제가 됐다. 광주문인협회가 발행하는 ‘광주문학’은 지난 1987년 창간호 발간 이후 35년 만에 100번째 책을 펴낸 것. 문인협회 사정상 중간에 발행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100호를 출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100호가 발행되는 동안 ‘광주문학’은 지역 문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기획과 특집을 게재했다. 광주문학의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광주문학의 정체성, 문학 담론을 담아왔다.

올해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시인들이 주축이 돼 서울에서 시 전문지를 창간해 화제가 됐다. 갈수록 문학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특히 문예지나 문학 전문지를 발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시 전문지 창간은 이례적이다. 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진혜진 시인, 2019년 당선자 강대선 시인 외에도 남도를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펼쳐온 시인들이 다수 참여해 시 전문지 ‘상상인’을 창간했다.

발행인 겸 대표는 진혜진 시인이, 주간은 시인인 광주교대 겸임교수 강대선이 맡았다. 편집위원으로 강대선 시인을 비롯해 여수 출신 마경덕 시인, 순천문화관에 근무하는 이선애 시인 등이 참여했다.

광주에서 10년째 시조 동인활동을 펼쳐온 시인들



지난 6월 길개시화전에서 펼쳐졌던 광주문인협회 공연 장면.

이 10여년 만에 첫 작품집 ‘흘러내리는 기-역’을 함께 출간한 것도 올해 수확이다. 주인공은 ‘광주문학 아카데미’ 동인들로 이들은 212년 염창관·고성만·이토록·이승희 시인이 주축이 돼 모임을 꾸렸다. 모두 중앙 문단 신춘문예나 중앙 시 전문지 출신들이며 서로의 작품을 읽어 주는 독자가 되는 심정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후 최양숙 시인 등 여러 시인이 참여하면서 모임이 확대됐다.

광주일보 계간 시산맥이 주관하는 동주문학상은 올해로 6회째 맞았다. 올해는 강재남 시인의 ‘꽃이라는 기호의 모습’ 등 5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총 236명이 응모를 한 이번 공모전에는 13명의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했으며 5명의 후보 작품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혜진 시인에게 돌아갔으며(수상작 ‘에어비엔비’ 등 5편), 운동주 시인의 정신을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

상은 뉴욕에 거주하는 광산희 시인의 ‘물의 길’ 등 5편이 선정됐다. 아울러 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신인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유금란 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문인들은 올해도 다양한 작품집을 펴냈다. 정경철 소설가는 원교 이광사의 삶과 예술세계를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을 펴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서울 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미란 작가(전남대 국문과 교수)도 오랜만에 창작집 ‘너의 경우’를 발간했다. 역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손병현 작가도 두 번째 소설집 ‘쓸 만한 봄이 나타났다’를 펴냈다. 정영희 시인은 디카시집 ‘당신을 머리맡에 두고 편히 잔 적 없었다’를 펴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언론학자이자 소설가인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장편 ‘큰새는 바람을 거슬러난다’로 올해 ‘이병주 국제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 출신 김승희 시인은 시집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으로 제36회 민해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송년특별공연

21일 ‘희노애락’...남도들노래·강강술래·대동놀이 등 24~25일, 두근두근 시어터 국악인형극 ‘꼬마농부 라비’

국립남도국악원이 연말을 맞아 특별한 국악공연을 잇따라 펼친다.

먼저 21일 오후 7시에 선보이는 송년특별공연 ‘희노애락(喜怒哀樂)’은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한 해를 이겨내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마련됐다.

공연은 진도군 지산면 인자리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국가무형문화재 제51호 ‘남도들노래’를 시작으로,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에 의해 행해지던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등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전통예술로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 낸 역동과 화합의 장 ‘대동놀이’로 장식한다.

이날 공연은 (사)한국국악협회 진도군지부장 이희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남도들노래 보존회, 강강술래 보존회 등이 참여해 지역예술인들이 한 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악당 로비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 주관으로 서예체험이 이루어진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인형극 ‘꼬마농부 라비’를 오는 24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선보인다.

이날 무대는 2017년 창단,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창작 가족극 전문공연단체 ‘두근두근 시어터’가 무대다.

‘꼬마농부 라비’는 훌륭한 농부가 되고자 하는 꼬마 두더지 라비의 좌충우돌 성장기,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의 소중함과 자연이 알려주는 평범하지만 커다란 이치를 들려준다. 국악인형극이라는 소재를 통해 국악과 인형극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공연 당일 관람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공연 관람 후 SNS와 누리집을 통한 후기 이벤트를 통해 한겨울을 포근하게 보낼 수 있는 담요를 제공한다. 당초 계획했던 스노우볼 만들기, 메리글로우 페인팅 등 체험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다.

두 개의 공연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으로 각각 190명을 모집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송년특별공연 ‘희노애락(喜怒哀樂)’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지정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보물 ‘떡 만들기’ 무형문화재 지정

올해 문화재 부문에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 국보로 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말한다.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으로, 변상도(變相圖)나 사경(寫經)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품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모두 3m가 넘는 초대형 불상으로,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들 불상은 1635년(인조 13년) 당시 유명한 조각승인 청현과 응원, 인균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제작했다.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대표적 조각승 색난(色難)이 제작한 대표 불상은 보물로 지정됐다. ‘광주 떡립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사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이 그것이다.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왼쪽부터 석가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1500년 전 삼국시대 유물인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도 올해 보물로 지정됐다. 금동신발은 5-6세기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삼국시대 고분 출토 금동신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 그동안 삼국시대 고분 출토 유물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등은 국보나 보물로 많이 지정됐지만 금동신발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밖에 관촌상제나 세시풍속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떡 만들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곡식 가루를 사용해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 생활 관습까지를 아우른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 향유돼왔던 막걸리와 관련된 ‘막걸리 빚기’도 문화재로 등록돼 관심을 끌었다. 막걸리를 빚는 작업과 생업을 비롯해 의례, 전통 생활관습을 포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천 출신 최미정 시인 신작 ‘인공눈물’

삶의 다양한 순간 감각적 이미지로 그려

시인은 인공 눈물을 넣지 않고는 가고 있는 세상을 견딜 수 없다고 노래한다. 시인이 상정하는 오늘의 세상은 사막과 같은 세상인 것이다. 눈물이 메말라 인공눈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일 터다.

순천 출신 최미정 시인이 펴낸 신작 시집 ‘인공눈물’ (문학들)은 일상의 이면에 드러워진 어두운 현실을 특유의 감각적 언어로 풀어낸다. 8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시집은 삶의 다양한 순간을 감각적 이미지로 변용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감각의 미시세계를 펼쳐낸다. 장석원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극광 같은 이미지다”. ‘무용 無用에는 이미지 죽은 이의 매일 주소를 보며 “간신히 새 나오던 불분명한 미래의 약속”을 떠올리고, 낯익은 반짝거리는 결석을 보며 “죽은 아이의 젖니”를 연상한다.

“뜻하지 않게 생겨나/ 꼬불꼬불 먼 길을 돌아 나온 수고로움/ 하얗게 분홍으로 빛나

다”, “하얗게 분홍”이라는 표현은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비유를 특유의 감각적 이미지로 그려낸 것이다. 장석원 시인은 “우리는 최미정이 실현해 낸 색채의 태극적인 변용을

이미지의 마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감각의 영광스러운 승리하고 선언할 것이다”며 “극광 같은 이미지의 향연에 초대된 우리의 몸에 불꽃이 인다”고 평한다.

한편 최미정 시인은 전남대 불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9년 ‘문학들’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시집 ‘검은 발목의 시간’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